

스포츠마케팅으로 스포츠메카로 도약 꾀한다

2023년 군산시에 전국 규모의 각종 스포츠대회가 열리며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2023 군산오픈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2023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KPGA 군산CC 오픈 프로골프대회,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초등·고등), △전국청소년클라이밍대회 등 국제·전국 대회와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야구, 골프, 축구, 탁구)가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전국 스포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부발전으로 스포츠 메카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대회를 위해 군산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인접관리와 편의 제공은 물론 군산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도록 힘써 지속적인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석배 중학생 축구대회



금석배 고교생 축구대회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
지난달 22일 2023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 결승전을 끝으로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전국 40개팀(저학년 23개팀)이 참가하며 선수단 및 관람객 약 1,500여명이 군산을 방문해 지역상권에 큰 활력을 주었다.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시는 이어서 4월에 4년만에 개최되는 군산의 대표 스포츠 이벤트인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분야의 관계기관 및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국제마라톤대회의 명성 지속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품격 높은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9일 7시30분 출발하며 국내 엘리트 풀코스(아시아인케임 국가대표 선발전), 국내·외 마스터스 풀코스 10km, 5km 종목에 약 8,000여명의 참가자와 관계자가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 도시를 관통하여 금강호의 수려한 코스를 함께 달릴 예정이다.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
5월에는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가 1일부터 13일까지 월명주경기장을 비롯한 보조구장 등 5개 구장에서 13일간 개최된다.



새만금철인3종경기

군산 출신의 축구인故재금석(1904~1995년)을 기리고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대회로 지난 1992년부터 군산에서 개최되어온 오랜 전통이 있는 대회인 만큼 전국의 우수한 고등학교 40개팀 약 1,500여명의 선수단이 군산을 방문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규척을 준수한 스포츠맨십에 입각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2023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군산에서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월명주경기장(축구), 월명실내체육관(탁구), 월명야구장(야구), 군산컨트리클럽(골프)에서 진행된다.

금석배 중학생 축구 성료
4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5월 금석배 고교생 축구
아·태 마스터스대회 개최
6월 철인3종·인라인마라톤 열려

금석배 초등 축구 등
하반기 예정 대회도 다채



새만금인라인마라톤대회

경주로 불리는 풀코스가 신설돼 운영된다. 종전의 하프코스(수영 1.9km, 사이클 90km, 러닝 21km)도 함께 운영되며 국내·외 1,50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제7회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는 6월 개최 예정으로 새만금광조제 일원에서 42km 경쟁, 21km 청년 장년, 11km 초등부 경쟁, 비경쟁으로 진행되며 약 5,000여명의 참여규모로 개최된다.

▲하반기 예정대회
하반기에 금석배 전국 초등학생 축구대회, 전국댄스 에어로빅페스티벌, 군산CC 오픈 KPGA 프로골프대회(1부투어),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대회, 군산오픈 유소년 및

실업 탁구대회,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 등 다양한 국제 및 전국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선수 및 관계자, 관람객 등 1만여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군산을 방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계획된 대회들은 전국 또는 국제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부 발전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선수단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군산을 방문 하면서 지역상권 및 스포츠 분야 메카도시로서의 역할과 경제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